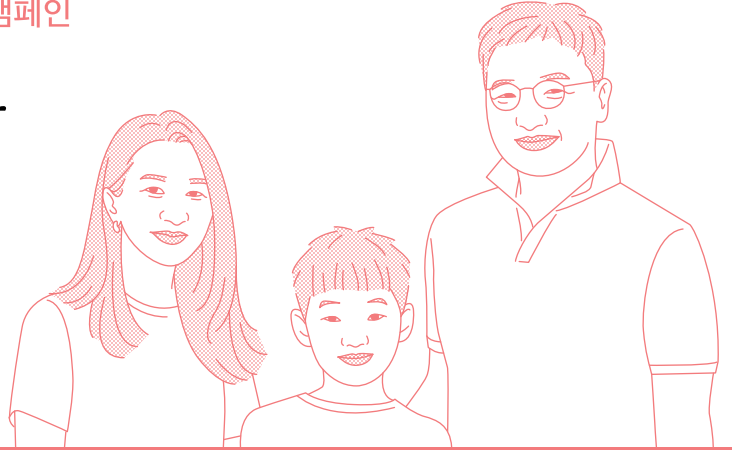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9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

## 기부는 좋은 습관입니다

김중영<sup>헨리코</sup>, 조익희<sup>요안나</sup> 가정



“기부는 좋은 습관입니다. 나아가 문화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소외된 곳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김중영<sup>헨리코</sup>, 조익희<sup>요안나</sup> 부부는 습관, 문화라는 단어로 나눔을 설명했습니다. 나눔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선진국보다 부족한 한국에서 나눔이 습관이 되어 조금씩 문화로 자리 잡히면 좋겠다는 바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눴을 때 상대방이 행복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쁠 수도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내 처지가 나를 행복하게 할 때도 있고, 나누는 행위에 대한 칭찬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눔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나눔을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일도 경계합니다. 나눔을 수치화해 경쟁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0종 1은 기부할 수 있지만, 2를 가진 상황에서 1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눔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 자발적인 실천이기에 ‘좋은 거니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한다면 반발심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들 동하<sup>다니엘</sup>에게도 나눔이 습관이 되게 해주려 노력할 뿐, 어떤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나눔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가 깨닫길 바라서입니다. 동하도 이러한 나눔 철학을 자연스레 배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해 동하 생일에 기부를 했어요. 동하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기부를 주도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재작년에는 본부를 방문해 기부금을 직접 전했는데, 아픈 친구들에게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을 듣고 신부님과 직원분의 따뜻한 환대와 격려를 받더니 무척 고무되어 앞으로 더 많이 기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들은 말합니다. “나눔이라는 좋은 습관이 아이에게, 또 아이의 자녀에게 전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나눔이 의무가 아닌, 모두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요.”

### 우리 아이의 특별한 시작, 생애첫기부

‘생애 첫 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가난한 친구들이나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 신청 및 문의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  
또는 전화(02)727-2299

# 매일 매일 울며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오빠 양○○입니다.

2011년 10월, 식당에서 일하시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계십니다.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되신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매달 나오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일용직 노동자였던  
아버지 혼자 감당하시기에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생으로 입학한 대학도 포기하고, ‘언젠간 뽀이 오겠지,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 스스로 위안하며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갑자기 쇠약해진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약 잘 먹고 다시 일도 시작할 거라 말씀하시던 아버지는  
1년의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매일 매일 울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네 가족이 모일 수 없다는  
생각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게 밀린  
어머니 병원비, 집세, 생활비 등 당장 닥친 문제들만으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알아봤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동생은 어려서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힘에 부치는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남은 동생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마저 지금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이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동생이 저를 보고 내뿜은 첫 마디는  
“오빠 돈 쓰게 해서 미안해.”였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 괴로웠을까 생각하면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동생의 치료비까지 저 혼자 세상과  
싸우기에 너무나 힘이 드네요. 하지만 동생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도움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뿐인 동생과 제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지난 3월 본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 환자의 오빠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부모의 치료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이어온 남매, 이제는 동생마저 쓰러져 오빠는 동생의  
병간호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와중에도 도움을 주신 본부와  
후원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사소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나눔의 씨앗으로 더 많은

아픈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환자 치료비 후원하기

### 후원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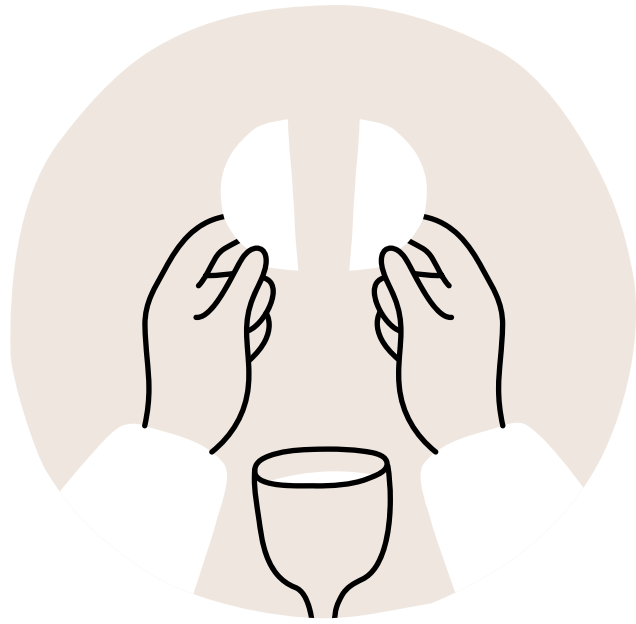
우리은행 1005-198-334455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74-3488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월레미사 및 특강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본부를 후원해주시고, 활동에 함께해주신 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2019 한마음한몸 월레미사 및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모성월인 5월 '행복한 가정과 나눔 실천'을 주제로 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선물같은 시간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 일시

매월 마지막 금요일  
특강 10시 30분 ~ 11시 30분  
월레미사 11시 40분 ~ 12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신청방법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 또는 전화(02)774-3488)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강의별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 월레미사 및 특강 내용

날짜	특강자	특강 주제
5월 31일	김정환 프란치스코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행복한 가정과 나눔 실천
6월 28일	이정민 비오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성경 속의 사랑 실천
7월 26일	배우 손숙 헬레나	배우이자 나는 그리스도인 - 토크콘서트
8월 30일	윤용찬 (주)WHY약관교실 대표)	몰라서 못 받는 보험 - 특강 후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 1:1 무료 상담 및 보험금 청구 문의진행
9월 27일	나종민 알베르토 (바라봄 대표)	외국계 회사 지사장장에서 착한 사진가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
10월 25일	신정훈 미카엘 신부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실천하는 신앙인
11월 29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팀	지구촌 생생정보통 모니터링 현장 이야기
12월 27일	주교 유경춘 디모테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사장)	성체성사의 삶

※ 신청 취소를 원하시면 전화로 꼭 알려주세요. 취소 없이 불참하실 경우 다음 참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